



김은주
(한국교육개발원)

삼십년 가까운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낸다는 것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로의 인연이라 생각한다. 조직의 특성상 도서관실은 같은 공간에서 구성원의 변화가 거의 없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수한 '9 to 6'를 함께 반복했다 할 수 있다. 유효순 실장님과의 이런 인연이 '정년'이라는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이룬다는 점 감사드린다.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이 인력 운용에 있어서 소수의 필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도 소수의 인원이 각자의 일에 zone defense 형태로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협업을 하는 작은 조직 특유의 탄력성을 최대한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물론 zone defense가 가능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조직 운영에 수평적인 사고를 가진 운영 방침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할 수 있다. 우리 도서관은 바로 이런 운영 방식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도서관실은 2010년에 도서관 분야

에서의 각종 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영광을 누린 바 있다. 물론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하지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부분은 유효순 실장님의 승부근성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도서관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변화 요구에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AskKEDI(KEDI전자도서관), 사이버교과서박물관, DoUknow, FARM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들과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과 개발이 의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 전문적 조직으로서 뭔가 우리 도서관이 다르다는 인식이 직원 간에는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대외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대외적인 인정을 받으면 더욱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2010년 한국도서관협회장 상인 '한국도서관상', 같은 해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 하는지를 모르던 원내 직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정보서비스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정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역시 상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다. 물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동안의 일을 종합하여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은 유효순 실장님의 타고난 승부 근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KSLA와의 남다른 인연은 재임기간 동안 이사로서 교육 분과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본원의 은퇴하신 김정자부장님께서 회장직을 맡았을 당시 간사를 맡아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왔던 인연에서 비롯된다. 아마 그 당시 각종 행사에 맞있는 것이 많았고, 뭔가 풍족한 느낌이 들었던 것을 오랜 회원들은 기억 할 것이다. 호불호가 확실하지만 목표를 향해서는 친화력을 바탕으로 승부 근성을 발휘하는 '쌈'이 많은 승부사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엉뚱한 순진함과 고지식함으로 웃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엉뚱함에 상대방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면모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유효순 실장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예를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시절 그다지 건강하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월을 거스르는

지금의 건강한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젊음을 유지하는 원칙을 지키는 고지식함, 정해진 만큼 하기로 했으면 틀림없이 하는 숙제 잘하는 학생 같이 강박적으로 지킬 것을 지키는 자세, 워크숍이나 노래방에서 뽐내던 식지 않은 열정, 젊게 사는 생각들이 세월을 거꾸로 가는 듯한 놀라움을 주는 것 같다. 힘의 세기로나 운동(특히 탁구)에서 웬만한 남자들도 이길 만한 힘, 또 그 힘이 때때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사건(?) 들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시골스러운 정, 사람에 대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최선을 다하는 정성, 이런 것들이 덧붙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KSLA의 평생회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니 반가운 일이다.

이제 도서실이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더욱 편안하고 기분 좋은 만남과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좋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퇴 후의 화려한 인생 2막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해마다 명절과 생일이면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던 실장님의 어머님께 감사드린다. 노환으로 맛있는 부침개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음이 아쉽지만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

워크숍에서
정보화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